# 함평전통시장, 중기부 문화관광시장 공모사업 선정

## 문화관광 사업비 8억4000만원 확보

## 협동조합 통한 상인 조직화 등 추진

함평군은 함평천지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3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문화관광형)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8억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해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 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사업이다.

함평군은 지난해 전통시장 혁신을 위한 특성화시장 첫걸음 기반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31개 전통시장 중 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도약형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됐다.

함평군은 오는 2024년까지 문화·관광 등 지역 특화요소와 전통시장을 연계한 관광콘텐츠 육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홍보·마케팅 등 판로개척, 협동조합을 통한 상인 조직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함평군과 사업단, 상인회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함께 일구어낸 성과"라며 "함평천지전통시장이 전남을 대표하는 명품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함평읍 전통시장 전경. (사진=함평군 제공)

## 신안군,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11억원 예산 절감

신안군은 2022년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여 1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계약심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 금액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검토하는 제도이다.

신안군 심사대상은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5천만원 이상, 물품 2천만원 이상의 원가심사와 계약금액 3억원 이상의 사업 중 설계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10%이상 증가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총 597건 1,363억원(공사 252건, 용역 87건, 물품 248건)의 심사를 통해 1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지난 5년간(2017년~2021년) 절감액은 120억원에 이른다.

현재 계약심사 지속시행으로 표준품셈 적용이 표준화되고, 사업부서 담당자 업무능력 향상 등으로 계약심사 절감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추진하여 부실시공 예방과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덕주 기자

## 영광군, 설 명절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추진

### 오는 20일 영광터미널시장·굴비골영광시장서 행사 예정

영광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0일, 영광터미널시장과 굴비골영광시장에서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물가와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 및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직자 300여 명이 영광사랑상품권을 이용하여 제수용품 및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장 및 주변 상점가 상인들과 시장을 찾은 군민들에게 전통시장 애용 및 영광사랑상품권 사용 홍보와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물가 안정 및 가격표시제 이행을 계도하고, 전통시장을 찾은 주민들과 함께 실질적 장보기가 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군민들의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인들에게 힘이 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 목포시, 설 연휴 시가지 청소업무 종합대책 추진

목포시가 설 연휴를 대비해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16~27일 시가지 청소업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16~20일을 중점 청소기간으로 정하고 주요도로 및 취약지 등에 방치된 쓰레기 등을 수거·처리하고, 목포역·버스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 주변에 대한 특별대청소를 실시한다.

특히 해상케이블카, 근대역사문화공간, 평화광장 등 주요관광지에 시민과 귀성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소기동반을 특별 편성·운영해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설 연휴가 끝난 후인 25~28일에는 연휴기간 미수거 쓰레기를 전량 수거하고 대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쓰레기 수거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쓰레기 분리배출 등 깨끗한 목포만들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쓰레기는 연휴기간 중인 21·23·24일은 평일과 같이 정상 수거하며, 음식물쓰레기는 21·24일 수거하므로 연휴기간 발생하는 쓰레기는 수거일에 맞춰 전일 야간에 배출해야 한다.

목포=기동취재본부

## '핑퐁민원' 없앤다…영암군, 업무조정TF팀 구성·운영

### 6급 팀장 1명씩 추천 총 25명 구성…신속한 업무조정 민원해결 우선

영암군은 '핑퐁민원'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업무조정TF팀을 구성·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업무조정TF팀은 2개 이상의 부서가 연계되는 복합민원이나 복잡하고 다변화된 행정환경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복합업무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배심원 제도로 운영되는 업무조정TF팀은 의회사무과를 제외한 전 부서에서 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6급 팀장 1명씩을 추천받아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이나 업무가 발생하면 주관부서인 혁신전략팀이 배심원단 가운데 분쟁이 있는 부서를 제외한 7명의 배심원을 추첨해 회의를 소집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회의 결과에 따라 담당부서가 결정되면 이해 관계 부서는 이를 즉각 수용하고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영암군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서 업무조정을 통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소관 부서 간 분쟁이 발생하면 군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게 된다"면서 "업무조정TF팀을 통한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혁신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은 2023년을 '영암군 혁신 원년의 해'로 삼고 시책일몰제와 행사성 사업 평가제, 혁신시책 발굴, 협업TF팀 운영, 군민참여 거버넌스 행정,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을 비롯한 다양한 시책을 펼쳐 군의 행정혁신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영암=조대호 기자

## 무안 남악복합주민센터 '자연家득' 입면녹화조성

무안군은 남악신도시에 소재한 남악복합주민센터 공연장 벽면에 입면녹화사업으로 '스마트 가든'을 조성했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도시농업 공간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됐으며 스노우사파이어, 안시리움, 홍콩야자 등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난 식물들로 식재됐다.

'스마트 가든'은 사물 인터넷(IoT)을 활용해 치유와 휴식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친자연적인 실내정원으로 이번에 설치된 '스마트 가든'은 실내 공기정화 식물과 자동급수시스템이 결합된 형태로 사계절 정원을 즐길 수 있으며 모니터를 통해 설치 전·후의 미세먼지, 습도, 온도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벽면의 푸르름이 아름다워 코로나 19로 지친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포토존으로서의 역할도 크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산 군수는"삭막한 공공건물에 녹색의 싱그러움과 실내공기정화로 공연장을 찾은 군민과 이용객 모두의 힐링공간으로 이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